

## 감귤박 원료 포장상자 개발

### 환경폐기물 자원 재활용 호평, 친환경사업체로 발전



고 추 월  
(주)월자제지 대표이사

제주도에 위치한 (주)월자제지와 월자포장이 제주도 관내 발생하는 감귤박을 이용, 골판지용 원지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림읍 금능농공단지내에 있는 (주)월자제지는 도내 감귤 가공공장에서 감귤농축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귤박(껍질)슬러지를 재활용해 골판지원지 원재료인 폐지와 혼합해, 고품질의 원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고추월 (주)월자제지 사장은 “4개 감귤가공공장에서 쏟아지는 감귤박은 연간 6만톤 가량에 이르고 있다”며 감귤박의 안정적인 자원화를 이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현재 감귤박 중 일부는 축산사료와 비료, 연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비량이 적어 상당량은 많은 비용을 들여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주)월자제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독일의 이쿠엑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주도 현지법인 (주)이쿠엑스 에코 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감귤 주스 생산시에 발생하는 감귤박을 재활용하여 골판지용 원지의 원료로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진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주)월자제지는 현재 국민대 삼림공학부 제지공학과 연구팀과 골판지용원지 개발에 꾸준히 연구하는 등 환경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친환경사업체로 거듭 발전하고 있



▲ 박스 완제품



▲ 폐지

는 상황이다.

고추월 사장은 “감귤박을 원료로 생산한 골판지 용원지로 제작한 골판지상자는 기존의 폐지 100% 원료로 제작한 골판지상자보다 파열강도, 압축강도가 뛰어나, 운송에 따른 농수산물 파손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감귤박에 함유되어있는 향균성분이 농산물 부패를 감소시켜 저장성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감귤박을 활용한 골판지 상자 제작을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감귤관련 업체 및 농가에 저렴한 골판지상자를 공급해 완전히 리사이클이 되어 농가의 경쟁력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월 사장은 “감귤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해양투기처리비용 절감, 고품질의 친환경골판 용원지 생산에 따른 재활용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특허출원을 해 놓았다”고 전했다.

1960년, 청과물 상점인 월자상회를 시작한 고추월 사장은 청과물 유통사업에서 포장은 매우 중요

하다는 판단 아래 84년 부도난 포장회사를 인수하면서, 포장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또순이 사장’으로 통하는 대표적인 여성기업인 고추월 사장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골판지 상자 제조 및 판매, 골판지 원단, 하우스 감귤박스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월자포장과 골판지용 골심지와 라이너를 생산하는 (주)월자제지, (주)그린자원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고품질의 강화골판지를 위한 최고 품질의 원단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고추월 사장은 제주상공회의소 여성부회 회장과 금능농공단지협의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96년 추월장학회를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1994년 상공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을 시작으로 제주도지사 표창장, 전국모범중소기업인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제주도 신지식으로 선정된 바 있다. [ko]

박초혜 기자